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 올바른 먹을거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_노광섭 센터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모범적인 형태의 친환경 농·축·수산식품의 학교 급식 플랫폼이다. 그 독특성의 핵심은 민관(民官) 거버넌스에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상황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반면, 공익성이나 책임성 면에서는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서울형 친환경 학교 급식 시스템은 이와 같은 민·관(民官)의 장점만을 살려 만든 것이다. 즉, 친환경 농축수산식품의 산지 공급과 학교 납품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산지 공급업체 및 급식업체의 선정 및 관리, 검품·검수, 안전성 검사, 가격 결정 그리고 유통센터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맡는 방식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1, 2센터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센터 등을 모두 319억 원을 들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비만 해도 43억 원, 검사원 수가 20명에 달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경제 이익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사회·정책적 인프라 투자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는 3개 팀 38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 급식 사업은 그간 정치적 지형에 따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018년 3월 말 현재 서울시내 1,333개교 중에 862개교에 친환경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축산·수산부류 공급업체 76업체와 납품업체 53개 업체 등 총 129개 민간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연간 공급 실적으로는 2017년을 기준할 때 1만 9,063톤, 1,514억 5,3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100톤, 7억 9,300만 원 어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쯤에는 이용학교가 900개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이와 같은 성장에 힘입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8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았다. 서울시 위·수탁 계약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학교 급식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센터사용료 0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그간 연간 20~30억 원의 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공적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개설 목적은 자라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길을 열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개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전문 검품원에 의한 1차 검품, 납품업체 직원에 의한 2차 검품, 그리고 영양교사 등에 의한 최종 검품이라는 3단계 검품과 320종의 잔류농약을 속성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 그리고 부적합품 발생 시에는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폐기 처분하고 있다.

둘째는 산지 공급업체 및 학교 납품업체 선정과 관리 과정의 공정화 및 투명화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최종 결정을 유관기관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다.

셋째는 적절한 가격의 책정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특성상 시장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점을 감안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가격을 과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가격산정 소위원회를 통해서 산정하며, 그 결과를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가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 급식 축산물 이력제 및 안전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품질 표준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생산부터 학교 공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품질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에 대한 통합품질공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 급식용 축산물 관리에 있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센터는 향후에도 축평원과 공동 노력하며 안전한 축산물 급식 재료 공급을 위한 축산물의 품질·위생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욱 공정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청렴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